

시론



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광주유학대학 학장

며칠 전 광복 80주년을 맞았다. 더욱이 금년 광복절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가운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대표 80명으로부터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 행사를 겸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니 그의 의미가 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전직 대통령들과 야당측 인사들이 대거 불참하거나, 어떤 이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목인시위'를 마다하지 않음으로서 거국적 축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제의 폭압 정치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은 날이니 그 무엇보다도 기쁜 날이고, 당연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함께 기뻐해야 했을 터인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였을까. 함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1945년 8월15일은 우리에게서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이니 광복(光復)이 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는 전쟁을 벌였던 일제가 항복한 날이니 전승(戰勝)이 되는 날이다. 요즘 중국 전역에서는 '난징사건'이라는 영화가 6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대륙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1937년 일제가 30만 명의 난징 시민을 학살했

광복 80주년의 상념(想念)들

던 난징대학살을 조명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관람하는 청소년들은 "일제에 복수해야 한다"고 외치며, 심지어 일본제 놀이기구와 서적들을 불태우며 적개심을 표출한다고 한다.

중국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며, 어찌보면 중국인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중국공산당이나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전개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일제의 만행으로부터 겪은 피해의 정도를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더했을 터인데 요즘 우리 국민들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역사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계투'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고 한다.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하면 제일 먼저 미국을 방문하던 것이 관례였는데 비추어 보면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광복 80주년 기념식의 경축사에서도 대일관계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전향적 자세를 표명했다는 점은 급변하고 있는 주변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다는 현실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학개론에 '외교(外交)는 내정(內政)의 연장'이라고 쓰여져 있다. 외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정치가 안정되어야 하며, 외교정책이 국민의 굳건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취임 2개월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50% 초반대로 낮아졌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채 내분으로 지리멸렬돼 있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높은 지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것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의아스럽다. 언론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이준석 법사위원장의 '차별 주석거래'와 '광복절 특별사면'을 거론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보다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특별사면'이 아닐까 싶다.

첫째, 아무리 특별사면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라도 할지라도 취임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때에 꼭 "사면을 서둘러야 할까"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원론적으로 민주정치가 3권 분립에 근거하고 있고, 이는 입법·행정·사법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대통령의 과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위안부 할머니 단체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을 꼭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야 했을까 하는 점이다. 사면의 뜻이 있었더라도 조금 참았다가 크리스마스 때 했으면 어떠했을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관세문제의 마무리와 함께 안보문제와 관련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주둔경비 증액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데 보다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때에 마침 공중과 TV 채널에서 근로정신대에 끌려갔던 이금주 할머니의 삶을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社說

DJ 서거 16주기, '김대중 정신'을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지난 18일 하루내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을 진행했고, 전남도도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추모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추모 논평을 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다시한번 되새겼다. 이번 추모식을 관통한 화두는 '평생을 민주주의, 남북 평화, 인권의 확립에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가르쳐 준 저항과 연대의 정신으로 12·3계엄을 물리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통령님은 삶의 희망이자 자존심이었고 민주주의와 평화정신의 살아있는 상징이었다"고 회고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 대

통령은 임기 동안은 물론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정에서 남김 그외의 발자취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행적이다. 특히 화해와 용서,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실천한 김대통령의 정신은 현재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만큼 서거 16주기를 맞아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강 시장은 "대통령이 가르쳐준 영호남 화합을 통한 지방 소외 극복을 인공지능(AI),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뜻에 따라 광주를 키워나갈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 역시 "전남도가 김대중 정신을 실천하는 선두에 서서 국민이 진짜 주인되는 민주국가를 만들어가겠다. 도민의 꿈이 현실이 되고 도민의 행복이 전남의 기쁨이 되는 '지금부터 전남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살아 숨쉬는 'DJ정신'을 서거 16주기를 맞아 다시한번 되새긴다.

광주 '특화의 거리' 전문성 강화·지자체 지원 절실

4만명에 달하는 광주·전남 자영업자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은 지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특화의 거리' 상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12·3계엄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이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특화의 거리 중 한 곳인 광주 북구 운암동 '공구의 거리'는 한때는 광주 전체 공구 물량의 40%가량을 소화하면서 성업을 이루던 곳이었다. 하지만 공장 증설과 제조 설비 등의 투자가 감소하는 산업 구조 대변환으로 인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지역에 쏟아진 '괴물 폭우'로 인해 영업중단을 시작으로 복구에도 수개월이 소요돼 가게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유례없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이들의 생계는 막막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일대 상인들은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재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입을 모은다. 자연재해가 없어도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폭우가 내리면 수개월간 가게는 개점휴업을 해야 한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자연재해 발생 시 정확한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 피해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구의 거리에는 수십년간 전문직종에 종사한 장인들이 직업의 자부심을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협동로봇, 온라인 관리 등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상인들의 전문성 강화가 특화의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해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공구의 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가능하다. 각자 경쟁력을 갖춰야 소비자들이 가게를 자주 찾게 된다는 말이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벗어나 '공구의 거리' 이름에 걸맞는 공구의 메카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기고



조영인

출판인·조인애드컴 대표

종이책, 저물녘 노을인가 새로운 새벽인가

책이 가진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듯한 씁쓸함을 안겨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이책의 가치와 미래를 굳게 믿는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에 익숙해졌지만, 종이책만이 줄 수 있는 경험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하다. 손끝으로 만져지는 종이의 질감, 인쇄된 글자를 따라가는 눈의 움직임, 그리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느껴지는 아날로그적 감성은 디지털 콘텐츠가 결코 줄 수 없는 깊이와 여운을 선사한다. 밤늦도록 아이 머리맡에서 읽어주던 동화책의 온기, 지친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차와 함께 넘기던 소설책의 위로는 종이책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삶에 깊이를 스며드는 경험과 정서적 교감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믿음만으로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변화의 물결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지역 출판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을 넘어,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

고 교류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 문화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지역의 역사, 인물, 설화 등을 기반으로 한 특색 있는 책을 기획하고, 지역 축제나 행사와 연계하여 독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디오북이나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종이책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독자들의 소비 패턴에 발맞춰 나가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 모든 시도들이 결국 종이책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출판업계가 저물녘 노을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앞으로도 이곳 광주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종이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

기고



하상용

前 빅마트대표·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백만평광주숲, 기후위기 앞 광주의 희망이다

의 정책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포럼에서도 "폭염 시대, 광주 군공항 부지 숲이 답이다"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해법의 핵심으로 숲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와 국내 선례도 강력히 우리를 설득한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조경가 올름스테드는 "이곳에 공원을 짓지 않으면 100년 후 폭염과 열대야로 정신병동이 필요할 것"이라 경고했으며, 실제 오늘날 센트럴파크는 뉴욕의 기후 완화와 휴식의 상징이다. 브라질 꾸리찌바는 '스펀지시티' 개념을 도입, 홍수 조절형 공원을 통해 재미와 치수기능을 동시에 확보한 모범 도시로 자리잡았다.

국내에서는 포항시의 그린웨이 프로젝트가 대표적 성공 사례이다. 지진 이후 도시회복을 위해 도심 하천 복원, 녹지축 조성, 빗물정원과 침투포장 확대 등 물순환 기반 정책으로 폭우 피해를 줄이고, 여름철 도심 기온

까지 낮추며 시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광주에는 이미 푸른길 공원이라는 훌륭한 자산도 있다. 폐선 철도를 녹지로 다시 살아가게 해 시민 보행·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이 프로젝트는 도심에서도 충분한 녹색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이제 광주는 더 담대한 비전을 품어야 한다. 백만평광주숲과 장록습지의 저류 기능을 결합하고, 광주천 양동부개 복원, 도심 전역의 빗물정원·침투포장 확대, 산책로와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숲과 물이 숨 쉬는 물순환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침수와 열섬을 동시에 완화하고, 생물다양성과 도시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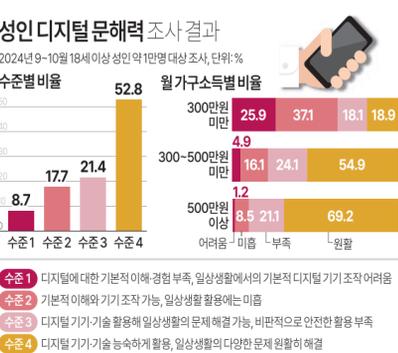
백만평광주숲은 선택이 아닌, 오늘을 사는 광주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이다. 우리 광주가 기후위기 시대를 뛰어넘는 모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픽 뉴스

"성인 8.2%, 일상서 기본적 디지털기기 조작도 어려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기차표 예매하기, 온라인 청첩장 확인하기,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하기, 은행 앱으로 송금하기...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디지털 활동이지만,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8명은 이런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보다는 농산어촌에서, 학력·소득이 낮을수록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성인 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내 성인들의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지난해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조사 결과 디지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수준 1'에 속한 사람은 8.2%였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23.3%에 달했다. 반면 청년층인 18~30세의 경우 '수준 1'에 속한 사람은 0.8%에 불과했다. 중학교 졸업 학력 이하 성인은 34.6%로 고졸(6.3%), 대졸 이상(0.9%)과 차이가 컸다. 월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성인은 25.9%로 300~500만원(4.9%), 500만원 이상(1.2%)보다 월등히 많아 소득에 따른 디지털 문해력 수준 차이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12.7%) 거주자들이 중소도시(8.6%)나 서울 및 광역시(6.1%)에 사는 사람들보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미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100%로 남성(6.3%)보다 많았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